

TRADE FOCUS

2016년 48호

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2016년 12월

통상연구실 민경실 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

CONTENTS

[요 약]	i
I. 최근 對中 무역 동향	01
1. 수출입 동향	01
2. 중국의 對韓 수입 동향	03
II. 한중 FTA 수출 성과 분석	04
1. 개황	04
2. 품목별 현황	05
III. 한중 FTA에 따른 對中 수입 성과 분석	09
1. 총괄	09
2. 한중 FTA의 활용 비중	10
IV. 한중 FTA 발효 1주년 설문조사	11
V. 결론 및 시사점	15

□ 보고서 내용 문의처

통상연구실 민 경 실 연구원 (☎ 02-6000-5498, ksmin23@kita.net)

제 현 정 연구위원(☎ 02-6000-5175, hje76@kita.net)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우리의 對중국 수출은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세 둔화와 주력 IT 품목의 수출 감소 등으로 9%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수출은 1.7% 감소하는데 그쳤다. FTA 수혜품목의 선전은 관세 인하가 가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화학·석유·화학 원료제품의 對중국 수출이 하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 FTA 수혜품목 중 수출물량이 증가한 품목수도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對중국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평가가 발효 초기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며, 통관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對中 수출기업 응답자의 약 50% 가량이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65%가 FTA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들의 기대가 컸던 48시간 이내 중국 통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 비중도 발효 초기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보호, 인적 이동 등과 관련하여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개선되었다는 답변은 여전히 응답자의 20%를 하회하고 있으며, 주재원 등 인적 이동에 대한 제약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앞으로도 정부간 비관세장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아직 발효 2년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제한적이나 향후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FTA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한중 FTA 3년차 관세인하에 힘입어 對중국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인하폭 확대에 따라 활용 기업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문

I. 최근 對中 무역 동향

1. 수출입 동향

■ 2016년 1~10월 한국의 對中 무역액은 9.5% 감소한 1,716억 달러 기록

- 수출은 전년 대비 12.0% 감소한 1,008억 달러, 수입은 5.6% 감소한 709억 달러로 나타남
- 對中 무역수지는 298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96억 달러 감소

<최근 한국의 對中 무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0월
수출	1,343.2	1,458.7	1,452.9	1,371.2	1,007.5
(증감률)	(0.1)	(8.6)	(-0.4)	(-5.6)	(-12.0)
수입	807.8	830.5	900.8	902.5	709.2
(증감률)	(-6.5)	(2.8)	(8.5)	(0.2)	(-5.6)
무역	2,151.1	2,289.2	2,353.7	2,273.7	1,716.7
(증감률)	(-2.5)	(6.4)	(2.8)	(-3.4)	(-9.5)
수지	535.4	628.2	552.1	468.7	298.3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중국 경제성장 둔화 및 자급률 상승으로 對中 수출은 2014년 이후 3년연속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감소폭도 확대 추세를 보임

- 기존 무세 또는 FTA양허 제외 품목중 對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가 수출 감소를 주도

<최근 한국의 주요국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0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국	1,343.2	0.1	1,458.7	8.6	1,452.9	-0.4	1,371.2	-5.6	1,007.5	-12.0
미국	585.2	4.1	620.5	6.0	702.8	13.3	698.3	-0.6	549.9	-5.9
일본	388.0	-2.2	346.6	-10.7	321.8	-7.2	255.8	-20.5	198.6	-7.6
세계	5,478.7	-1.3	5,596.3	2.1	5,726.6	2.3	5,267.6	-8.0	4,050.8	-8.0

주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對中 수입은 금년중 2012년 이후 4년만에 감소세(-5.6%)를 시현하였으며
감소폭은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편임

- 對중국 수입 감소는 휴대폰 및 부품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

<최근 한국의 주요국 수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0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국	807.8	-6.5	830.5	2.8	900.8	8.5	902.5	0.2	709.2	-5.6
미국	433.4	-2.8	415.1	-4.2	452.8	9.1	440.2	-2.8	352.6	-4.9
일본	643.6	-5.8	600.3	-6.7	537.7	-10.4	458.5	-14.7	386.4	-0.4
세계	5,195.8	-0.9	5,155.9	-0.8	5,255.1	1.9	4,365.0	-16.9	3,303.6	-10.0

주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품목별로는 수출입 모두 평판디스플레이, 휴대폰부품 등 IT 품목의 부진이 두드러짐

- 주요 수출품목 중 석유화학중간원료, 기타 플라스틱제품, 기타 정밀화학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를 시현
- 수입의 경우 휴대폰 및 무선통신기기부품과 평판디스플레이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한국의 對中 수출입 품목 현황>

(단위 : 억 달러, %)

수출					수입				
품목	2015	2016. 1~10월			품목	2015	2016. 1~10월		
	금액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금액	증감률	비중
집적회로반도체	254.1	178.8	-16.1	17.7	집적회로반도체	91.5	73.2	1.4	10.3
평판디스플레이	219.4	151.3	-19.0	15.0	기타정밀화학원료	31.2	25.4	-4.6	3.6
합성수지	63.2	49.0	-8.3	4.9	무선통신기기부품	42.5	24.9	-32.4	3.5
석유화학중간원료	57.9	47.9	0.3	4.8	컴퓨터	22.0	19.0	3.0	2.7
자동차부품	58.8	43.8	-6.9	4.3	전선	21.6	17.8	0.9	2.5
무선통신기기부품	67.2	33.8	-38.7	3.4	무선전화기	29.7	17.5	-24.2	2.5
기초유분	25.8	20.0	-9.8	2.0	평판디스플레이	30.1	17.2	-35.1	2.4
기타플라스틱제품	19.2	17.1	7.3	1.7	직물제의류	20.7	16.3	-6.8	2.3
광학기기부품	22.0	16.9	-9.5	1.7	개별소자반도체	18.7	14.4	-7.4	2.0
기타정밀화학원료	16.5	15.7	16.0	1.6	열연강판	18.2	13.8	-13.2	1.9
소계	803.9	574.2	-14.8	57.0	소계	326.3	239.5	-11.4	33.8
전체	1,371.2	1,007.5	-12.0	100.0	전체	902.5	709.2	-5.6	100.0

주 : MTI 4단위 기준,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2. 중국의 對韓 수입 동향

- 한중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對한국 수입은 9.8% 감소하여 경쟁국인 일본(-0.7%), 대만(-4.2%), 독일(-3.2%)에 비해 감소세가 컸음
- 對日수입의 감소폭이 적은 것은 반도체 제조장비(HS 8486), 자동차(HS 8703) 및 동 부분품(HS 8708)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

<최근 중국의 주요국 수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0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한국	1,666	(3.0)	1,794	(7.7)	1,903	(6.1)	1,743	(-8.4)	1,278	(-9.8)
일본	1,777	(-8.6)	1,591	(-10.5)	1,627	(2.3)	1,427	(-12.3)	1,168	(-0.7)
대만	1,322	(5.8)	1,503	(13.7)	1,523	(1.3)	1,445	(-5.1)	1,118	(-4.2)
미국	1,278	(8.2)	1,443	(12.9)	1,531	(6.1)	1,440	(-6.0)	1,040	(-10.9)
독일	920	(-0.8)	938	(1.9)	1,048	(11.7)	875	(-16.5)	707	(-3.2)
호주	786	(-2.9)	914	(16.3)	901	(-1.4)	651	(-27.7)	505	(-7.4)
말레이시아	582	(-6.1)	589	(1.1)	558	(-5.3)	532	(-4.6)	388	(-10.9)
세계	18,173	(4.3)	19,415	(6.8)	19,631	(1.1)	16,016	(-18.4)	12,215	(-7.1)

주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금년중 일본의 상대적 약진 및 한국의 점유율 하락(-0.4%p)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13년 이후 4년 연속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p)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A)	2016. 1~10월(B)	B-A
한국	9.2	9.2	9.7	10.9	10.5	-0.4
일본	9.8	8.2	8.3	8.9	9.6	0.7
미국	7.0	7.4	7.8	9.0	9.2	0.2
대만	7.3	7.7	7.8	9.0	8.5	-0.5
독일	5.1	4.8	5.3	5.5	5.8	0.3
호주	4.3	4.7	4.6	4.1	4.1	0.0
말레이시아	3.2	3.0	2.8	3.3	3.2	-0.1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Ⅱ. 한중 FTA 수출 성과 분석¹⁾

1. 개황

■ 2016년 발효 2년차 중국의 한중 FTA 수혜품목 수입은 여타 적용세율 품목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한중 FTA 수혜품목) 금년 1~10월중 중국의 對한국 수입은 전년 대비 1.7% 감소에 그쳐 전체 對韓 수입 감소율 9.8%를 크게 하회

－ 금년 1, 2분기에 각각 9.8%, 3.6% 감소했으나, 하반기(7~10월)에는 6.2% 증가하여 전체 중국의 對韓 수입 감소세를 완화시킴

* 수혜품목 對韓 수입 : -9.8%(1Q) → -3.6%(2Q) → 6.2%(7~10월) ⇒ -1.7% (1~10월)

* 수혜품목 전체 수입 : -9.3%(1Q) → -5.4%(2Q) → -2.0%(7~10월) ⇒ -5.1% (1~10월)

－ 하반기중 수혜품목인 석유화학제품(벤젠 등)의 수입 급증에 힘입어 FTA 수혜 품목의 수입이 증가세로 반전

* 하반기 중국의 對한국 수입 급증 품목 : 석탄타르 추출물(HS 27079990, 27075000), 실리콘 함유 기타 정밀화학제품(HS 28046190)

<중국의 對한국 FTA 수혜품목 및 여타세율 품목의 수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

국가	최적세율	2015년		2016년							
				1~3월		4~6월		7~10월		1~10월	
對 한국	아태협정세율	317	(-30.7)	58	(-24.5)	60	(-26.7)	83	(-21.4)	201	(-23.9)
	한중FTA	225	(-9.7)	51	(-9.8)	56	(-3.6)	77	(-6.2)	184	(-1.7)
	MFN세율	961	(-5.0)	197	(-8.3)	211	(-5.1)	291	(-12.1)	699	(-9.0)
	잠정세율	239	(-14.7)	54	(-8.2)	58	(-1.4)	82	(-3.2)	194	(-1.6)
	기타	1	(-0.5)	0	(-100)	0	(-100)	0	(-100)	0	(-100)
	전체	1,743	(-8.4)	360	(-11.6)	384	(-8.6)	534	(-9.5)	1,278	(-9.8)
對 세계 (전체)	아태협정세율	2,286	(-20.6)	440	(-15.4)	517	(-10.5)	714	(-8.0)	1,672	(-10.8)
	한중FTA	3,300	(-9.5)	701	(-9.3)	811	(-5.4)	1,076	(-2.0)	2,588	(-5.1)
	MFN세율	8,288	(-15.6)	1,652	(-14.5)	1,911	(-6.8)	2,718	(-2.8)	6,281	(-7.3)
	잠정세율	2,122	(-12.8)	443	(-11.6)	492	(-8.8)	661	(-7.2)	1,596	(-9.0)
	기타	19	(-97.7)	18	(371.2)	29	(667.9)	32	(438.2)	79	(482.7)
	전체	16,016	(-18.4)	3,254	(-12.7)	3,759	(-6.7)	5,202	(-3.5)	12,215	(-7.1)

주 : 1. ()내는 전년도동기대비 증감률

2. 아태협정세율(APTA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은 대한민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및 라오스를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중국무역통계 및 분야별 관세율 자료를 기초로 작성

1) 2016년 기준, 중국의 HS 8단위 8,294개에 부과되는 관세율 중 가장 유리한 세율로 구분하면, 한중 FTA 특혜세율 5,528개, 아태협정세율 953개, MFN세율 1,813개(잠정세율 586개)로 분류됨

- (여타세울 품목) 물가안정, 수입원활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잠정세울 부과 품목의 對韓 수입은 1.6% 감소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최혜국대우 세울(MFN) 부과 품목은 9.0% 감소
- 금년 중 중국의 한중FTA 수혜품목의 對세계 수입이 5.1% 감소한 반면 對한국 수입은 1.7%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한중 FTA가 對中 수출 감소세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됨

2. 품목별 현황

■ FTA 수혜품목의 49.1%에서 수입금액이 증가했으며, 수입물량이 증가한 품목을 포함할 경우 전체의 90.1%에서 금액 또는 물량이 증가

- 금년중 對韓 수입 1,000달러 이상의 FTA 수혜품목 2,921개중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이 1,434개였으며, 수입액은 감소했으나 수입물량이 증가한 품목이 1,198개에 달해 전체 수혜품목의 90.1%가 금액 또는 물량이 증가
- 한국의 경우 수혜품목 중 對中 수출물량이 증가한 품목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FTA 관세인하가 대중수출시 수출단가 인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수혜품목 중 금액이 감소하고 물량이 증가한 품목수 비중(%) : 9.6('15년) → 41.0('16.1~10)
 * 비수혜 품목중 금액이 감소하고 물량이 증가한 품목수 비중(%) : 10.3('15년) → 12.6('16.1~10)

<중국의 적용세율별 對韓 수입증감 품목 수>

(단위 : 개수, %)

	2015년				2016.1~10월			
	FTA 수혜품목		비수혜품목		FTA 수혜품목		비수혜품목	
금액증가	1,486	(48.1)	861	(48.0)	1,434	(49.1)	792	(46.0)
금액감소	1,603	(51.9)	932	(52.0)	1,487	(50.9)	929	(54.0)
-(물량증가)	297	(9.6)	185	(10.3)	1,198	(41.0)	217	(12.6)
-(물량감소)	1,306	(42.3)	747	(41.7)	289	(9.9)	712	(41.4)
소 계	3,089	(100)	1,793	(100)	2,921	(100)	1,721	(100)

주 : 1. ()내는 품목수 비중

2. HS8단위 기준 중국의 對韓 수입액이 1,000달러 이상 품목을 대상으로 계산

3. 비수혜품목은 MFN세율(잠정세율 포함), 아태협정세율(APTA) 품목을 의미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중국무역통계 및 분야별 관세율 자료를 기초로 작성

■ 품목별로는 정밀화학원료, 철강판, 자동차부품, 원동기·펌프 등에서 對韓 수입액과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였으며, 기초유분, 합성수지, 석유제품 등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은 수입액은 감소했으나 물량이 증가

● 반면 장기철폐 품목인 합성고무, 인조장섬유직물, 주단조품, 가죽, 광학기기 등은 對한국 수입금액과 수입물량이 모두 감소

－ 물량감소 품목의 관세철폐기간 : 합성고무(15년), 광학기기(10~15년), 인조장섬유직물(15~20년), 가죽(10~15년), 주단조품(5~15년)

<한중 FTA 수혜품목 중 수출 금액·물량 증감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품목	2015년		(물량)	2016. 1~10월		(물량)
금액증가 · 물량증가	기타석유화학제품	669	(-38.9)	▽	1,121	(103.1)	▲
	정밀화학원료	1,338	(6.5)	▲	1,278	(14.5)	▲
	철강판	798	(-21.3)	▲	748	(13.9)	▲
	자동차부품	557	(-1.6)	▲	483	(11.8)	▲
	원동기·펌프	455	(-20.8)	▼	386	(4.3)	▲
	플라스틱제품	971	(-4.4)	▲	799	(0.7)	▲
금액감소 · 물량증가	기초유분	858	(-19.5)	▲	691	(-7.2)	▲
	고무제품	314	(-6.9)	▽	247	(-1.7)	▲
	운반하역기계	396	(25.9)	▲	321	(-6.7)	▲
	기계요소	875	(-5.5)	△	706	(-1.0)	▲
	동제품	828	(-9.5)	△	682	(-1.2)	△
	무선통신기기	841	(26.5)	▲	556	(-14.4)	△
	정전기	433	(-12.5)	▽	317	(-11.9)	△
	합성수지	2,603	(-17.2)	▲	1,961	(-10.8)	△
	석유제품	966	(-21.7)	▲	731	(-12.2)	△
금액감소 · 물량감소	합성고무	587	(-17.9)	▲	387	(-23.7)	▽
	인조장섬유직물	328	(-18.4)	▼	237	(-12.3)	▽
	주단조품	293	(4.1)	▲	206	(-13.8)	▼
	가죽제품	352	(-8.1)	▼	205	(-31.8)	▼
	광학기기	640	(-9.2)	△	451	(-14.9)	▼

주 :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수입액증감률이며 품목분류는 중국의 HS8단위를 한국의 MTI3단위로 연계함

2. 물량증감률은 세부품목의 물량 증감률을 MTI3단위별로 금액기준 가중평균하였으며, △(0%초과~10%미만), ▲(10% 이상), ▽(-10%초과~0%미만), ▼(-10%이하)를 의미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중국무역통계를 기초로 작성

■ 수해품목 중에서 관세인하폭이 큰 품목의 수출성과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혜국대우(MFN) 세율 대비 FTA 관세율이 3.0%p 이상 낮은 수해품목 중 알루미늄, 석유화학중간원료, 봉강·철근, 동제품, 편직물 등에서 對韓 수입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 (알루미늄) 금년중 對韓 수입실적이 있는 50개 품목의 수입액이 25.3% 감소한 반면 3%p 이상 관세인하 품목 11개는 수입이 18.2% 증가
- － (석유화학중간원료) 금년중 對韓 수입실적이 있는 7개 품목의 수입액이 0.9% 감소한 반면 3%p 이상 관세인하 품목 2개는 수입액이 29.2% 증가
- － (동제품) 금년중 對韓 수입실적이 있는 65개 품목의 수입액이 18.9% 감소한 반면 3%p 이상 관세인하 품목 23개는 수입이 4.4% 증가

<관세인하폭 3%p 이상 품목 중 주요 수출증가 품목(2016.1~10월중)>

(단위 : 백만 달러, %)

품 목	전체			수해품목			차이 (b-a, %p)
	품목수	금액	증감률(a)	품목수	금액	증감률(b)	
알루미늄	50	619	(-25.3)	11	27	(18.2)	43.5
석유화학중간원료	7	4,882	(-0.9)	2	91	(29.2)	30.1
선재·봉강	24	117	(11.1)	4	34	(40.0)	28.9
동제품	65	1,350	(-18.9)	23	408	(4.4)	23.3
기타화학공업제품	54	1,054	(-1.6)	8	55	(20.5)	22.1
편직물	50	257	(-13.3)	38	33	(6.2)	19.5
유리제품	64	1,151	(85.3)	15	671	(104.7)	19.4
섬유·화학기계	86	348	(-5.0)	18	138	(12.0)	17.0
금형	15	411	(-30.6)	3	19	(-14.9)	15.7
타일·도자기제품	20	34	(14.6)	9	27	(25.9)	11.3
기타기계류	32	1,323	(6.9)	2	43	(18.1)	11.2
농약·의약품	31	191	(0.3)	13	87	(9.7)	9.4
합성수지	70	5,527	(-11.6)	7	95	(-3.4)	8.2
면직물	63	42	(-23.5)	49	15	(-15.5)	8.0
원동기·펌프	67	1,066	(12.8)	15	266	(19.4)	6.6

주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률, 품목분류는 중국 HS8단위를 한국의 MTI3단위로 연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중국무역통계를 기초로 작성

■ 관세철폐가 대부분 10년 이상인 소비재 수혜품목의 경우 플라스틱제품, 기호식품, 피아노, 가정용회전기기를 중심으로 對韓 수입이 증가

● 반면 의류, 냉장고, 난방전열기기 등의 소비재는 對韓 수입이 감소

<수혜·비수혜 소비재 품목의 대한민국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 목	양허 기간	수혜품목				비수혜품목				증감률 차이 (b-a)
			'15	증감률	16.1~10	증감률 (b)	'15	증감률	16.1~10	증감률 (a)	
수혜 > 비수혜	안경	10~15년	0	(-48.0)	15	(52959)	23	(53.1)	22	(12.4)	52947
	피아노	10년	16	(0.6)	21	(66.3)	0	(103.0)	0	(-24.2)	90.5
	기호식품	10~20년	42	(-18.8)	45	(42.7)	202	(27.4)	170	(-1.7)	44.4
	가정용회전기기	10~15년	25	(-7.7)	23	(15.3)	117	(-21.6)	71	(-23.4)	38.7
	타일·도자기제품	5~10년	35	(2.3)	32	(17.4)	3	(-22.5)	2	(-11.7)	29.1
	플라스틱제품	10년	423	(1.0)	347	(1.7)	317	(9.8)	244	(-7.5)	9.2
	도료및잉크	5년	7	(2.8)	8	(41.3)	28	(-31.2)	19	(-18.5)	59.8
수혜 < 비수혜	의류	10년	56	(4.0)	43	(-11.5)	94	(-1.6)	69	(-10.4)	-1.1
	냉장고	10~20년	128	(-6.6)	51	(-53.8)	0	(73.0)	0	(-52.5)	-1.3
	난방·전열기기	10년	33	(-0.5)	24	(-15.2)	48	(43.0)	35	(-11.0)	-4.2
	가방	10~15년	28	(19.3)	27	(12.9)	15	(39.0)	16	(23.8)	-10.9
	조명기기	5~20년	107	(-12.9)	97	(16.6)	5	(-24.6)	5	(27.9)	-11.3
	농산가공품	10~20년	90	(37.8)	81	(13.7)	106	(49.9)	106	(26.1)	-12.4
	비누치약·화장품	10년	20	(127.9)	13	(-14.5)	801	(218.1)	978	(58.9)	-73.4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중국 HS8단위 품목중 소비재 품목 2,447개를 추출하고 이중 對한국 수입실적이 있는 1,600개 품목에 대해 수혜품목 868개, 비수혜품목 732개로 구분하였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중국무역통계를 기초로 작성

Ⅲ. 한중 FTA에 따른 對中 수입 성과 분석

1. 총괄

- 한중 FTA 발효 이후 對中 수입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709.2억 달러 기록
- 금년 중 FTA 수혜품목의 對中 수입은 전년 대비 2.8% 감소했고, FTA 非수혜 품목 수입은 7.7% 감소
-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한국의 對中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FTA 혜택별 대중 수입 증감률(중국의 對한국 수출)>

(단위 : 억 달러, %)

	'15.1~10월			FTA 발효 이후 '16.1~10월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체 품목	750.1	2.0	100.0	709.2	-5.6	100.0
- 수혜	331.9	-1.4	44.2	322.6	-2.8	45.5
- 비수혜	403.2	6.4	53.8	372.2	-7.7	52.5
- 기타	15.0	-26.1	2.0	14.5	-3.6	2.0

주 : 수혜품목은 FTA 발효 이후 관세가 n% → 0% 철폐 또는 관세인하 품목이며, 비수혜품목은 기존 무관세 품목, 일정기간 관세 인하철폐유예품목, 양허제외품목, 기타품목(저율할당관세, TRQ) 및 FTA 특혜세율이 여타 관세율보다 높아 활용실익이 없는 품목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2016년 1~10월중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입이 -7.6%를 기록하며 부진한 상황에서 대중 수입은 FTA 효과에 힘입어 5.6% 감소
- 비수혜품목의 경우 대중수입이 금년중 6.4% → -7.7%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반면 수혜품목은 -1.4% → -2.8%로 감소폭 확대가 크지 않았음
- FTA 수혜품목에 대한 對美 수입은 13.0% 감소하여 중국의 감소율 -2.8%를 큰 폭으로 하회함

<한중 FTA 이후 주요국 수입 증감률(對한국 수출) 비교>

(단위 : %)

	2015년 1~10월			2016년 1~10월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중국	-1.4	6.4	2.0	-2.8	-7.7	-5.6
일본	-13.1	-13.6	-13.3	1.8	-0.7	0.8
미국	0.2	-2.1	-3.0	-13.0	2.9	-5.0
세계	-7.0	-4.2	-11.8	-4.9	-4.0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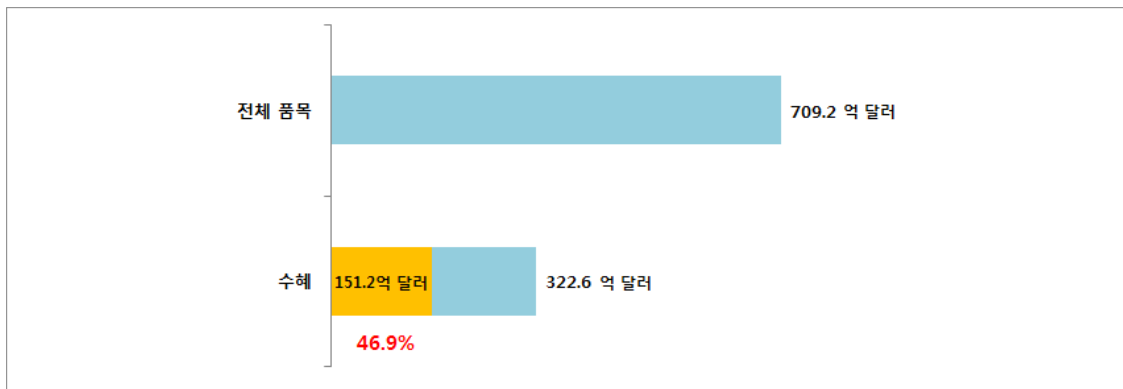
주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 한중 FTA의 활용 비중

- 한국측 통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의 한중 FTA 특혜가 적용되는 對中 수입 중 FTA를 실제 활용한 수입의 비중이 46.9%로 나타남
- 한국의 對중국 수입금액(709.2억 달러) 중 FTA 수혜품목의 규모는 322.6억 (45.4%) 달러이며, 이 중 실제로 FTA를 활용하는 품목의 수입은 151.2억 달러로 한중 FTA 수입활용률은 46.9%에 달했음

<한중 FTA 활용 비중 (2016 1~10월 기준)>



주 : FTA 활용률은 한국 수입업체가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FTA 세율 적용 여부를 직접 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실제 활용률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음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및 한국무역협회(K-stat)를 이용하여 계산

- 품목별로는 질소비료, 인산비료, 흑연, 석회석 등의 순서로 높은 활용률을 기록

<한국 FTA 활용 비중이 높은 상위 20개 품목>

(단위 : %)

MTI(3단위)	품목명	활용 비중	MTI(3단위)	품목명	활용 비중
231	질소비료	98.8	232	인산비료	96.4
121	흑연	96.3	124	석회석	96.2
333	모피	95.5	241	시멘트	95.5
213	석유화학합성원료	92.6	262	운모제품	86.5
224	표면활성제	85.9	531	피아노	85.0
823	냉장고	84.7	043	연체동물	84.7
824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83.9	014	식물성 재료	83.3
411	인조섬유	82.7	725	건설광산기계	82.4
239	기타비료	82.1	332	가죽제품	81.7
423	인조섬유방적사	81.4	630	식탁용구	81.3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및 한국무역협회(K-stat)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IV. 한중 FTA 발효 1주년 설문조사

【 설문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금년중 對중국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기업 605개사
- 조사기간 : 2016년 11월 30일~12월 7일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Web Survey)
- 응답자 구성
 - 대기업(300인 이상) 12.1%, 중견기업(100~299인) 23.0%, 중소기업(10~99인) 52.9%, 10인 미만 기업 12.1%
 - 농수산물 5.1%, 광산물²⁾ 0.7%, 화학·플라스틱·요업·제지 12.9%, 가죽·섬유·의류 6.6%, 생활용품·뷰티·화장품 9.8%, 철강·비철 4.3%, 기계선박 16.5%, 자동차·부품 9.9%, 전기전자 15.7%, 기타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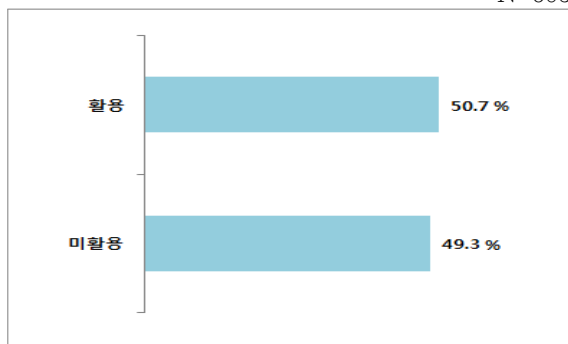
1. 한중 FTA 활용 현황 및 발효 1주년 영향 평가

■ 한중 FTA 발효 이후 10개월 동안 50% 이상의 기업이 FTA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차 관세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65.0%가 긍정적으로 평가

- (활용 여부) 활용(50.7%)>미활용(49.3%)
- (관세인하 효과) 효과있다(65.0%)>보통(30.4%)>효과없다(4.6%)
- 어려운 대내외 수출환경을 감안하면 한중 FTA가 금년 對中 수출에 적지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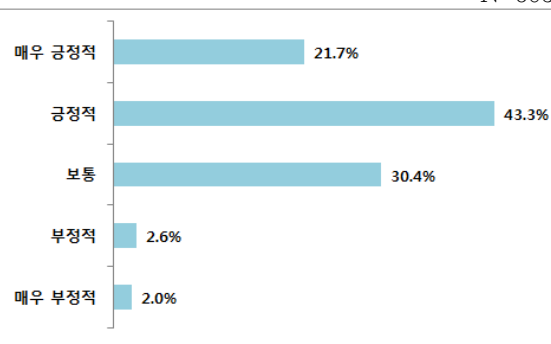
<한중 FTA 활용 여부>

N=605



<발효 2년차 관세인하 효과>

N=605



2) 석유제품, 광물성연료,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등을 포함

■ 한중 FTA 2년차에 따른 전반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발효 초기(발효 100일) 보다 긍정적 평가를 내림

- 응답자의 35.5%가 한중 FTA로 현지 상담 및 주문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여 발효초기의 18.6%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국 바이어의 FTA 활용 의지가 높아졌다는 응답도 48.6%로 높아짐
- FTA 발효 이후 원부자재 수입선을 중국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이 32.4%이며, 중국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상승했다는 답변도 42.3%로 발효초기 대비 소폭 상승함

<한중 FTA 2년차에 따른 시장 상황>

(단위 : %)

현황	구분	응답비율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한중 FTA로 현지 상담 · 주문이 증가하였다	발효 초기	18.6	40.6	40.8
	발효 1주년	35.5	60.7	3.8
중국 바이어의 FTA 활용 의지가 높다	발효 초기	32.1	38.0	29.9
	발효 1주년	48.6	46.4	5.0
원부자재 수입선을 중국으로 전환하였다	발효 초기	25.1	37.7	37.2
	발효 1주년	32.4	63.1	4.5
중국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가 높아졌다	발효 초기	39.2	40.4	20.4
	발효 1주년	42.3	53.7	4.0

주 : 발효초기 응답은 2016.3월초에 조사한 결과임

■ 중국의 통관 및 비관세장벽 분야에 대한 무역업계의 만족도가 발효초기(발효 100일)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48시간 이내 통관(38.0%), 통관절차의 일관성·투명성(30.9%), 기술장벽 개선(29.6%)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발효초기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 특히, 우리 기업들의 기대가 컸던 48시간 이내 통관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초기 18.4%에서 38.0%까지 상승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23.0%에서 12.4%로 감소

-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의 사후 신청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도 36.7%로 높아졌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6.3%에 불과
- 지식재산권 보호, 주재원·자연인 이동 활성화 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비중은 발효 초기 보다는 상승했으나 각각 19.8%, 21.3%에 그침

<FTA 발효 이후, 중국의 통관 및 비관세장벽 평가>

(단위 : %)

현황	구분	응답비율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48시간 이내 중국 통관이 잘 시행되고 있다	발효 초기	18.4	58.6	23.0
	발효 1주년	38.0	49.6	12.4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의 사후 신청이 개선되었다	발효 1주년	36.7	57.0	6.3
중국 세관별 일관성, 투명성 등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있다	발효 초기	18.2	57.2	24.6
	발효 1주년	30.9	57.4	11.7
인증, 절차, 등록, 라벨링 등 기술장벽이 개선되고 있다	발효 초기	14.6	61.0	24.4
	발효 1주년	29.6	59.2	11.2
상표권, 온라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개선되었다	발효 초기	14.8	62.2	23.0
	발효 1주년	19.8	73.9	6.3
주재원, 자연인 이동이 완화되고 있다	발효 초기	22.0	61.2	16.8
	발효 1주년	21.3	70.2	8.4

주 : 발효초기 응답은 2016.3월초에 조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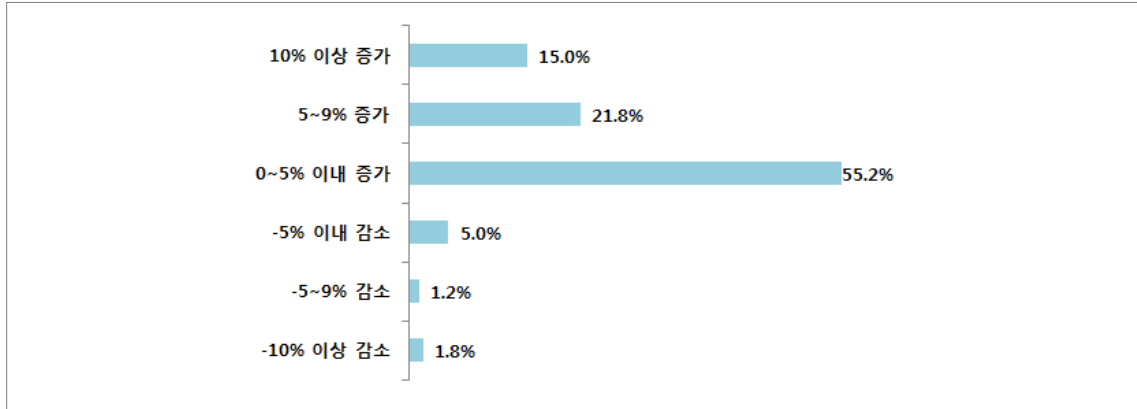
2. 대중국 수출 2017년 전망

■ 응답업체의 92.1%가 2017년 3년차 관세인하로 對中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수출물량 전망) 5%이내 증가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고 5%이상 증가 응답도 36.8%에 달한 반면, 수출감소 응답은 8.0%에 불과했음
- 세계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를 통한 수출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관세인하 3년차 대중 수출물량 전망>

N=605



(참고) 한중 FTA 활용 애로사항

구분	세부 내용
① 통관 관련 애로	-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복잡하고 FTA 관세 적용 시 엄격한 통관 절차에 따른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업체들이 일반 통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 (예) 화공·화학제품, 항공운송제품 - 중국 당국은 중국내 통관시간을 EDI 신고 이후의 관세납부, 면장발급 등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소극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상품검사국의 검사와 신고절차 시간이 제외되는 실정임. 향후 통관 시간 해석에 관한 양국 정부간 재논의가 필요 - 한국과 중국의 HS 코드 앞 6자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국 기준의 원칙에 따라 한국측 코드 변경 작업이 필요 - 상해의 경우 물동량이 많아 48시간 이내 통관이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
② 원산지증명 관련 애로	- 현재 중국 세관은 전자방식 원산지 증명서(C/O)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물 C/O와 확인·비교하는 절차를 진행중. 이 과정에서 중국 수입자와 세관 담당자의 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편 초래 - 화물 통관 이후 규정상 세관장 허가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사후 제출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진행절차상 어려움이 많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북경·상해·성도지부

V. 결론 및 시사점

- 작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우리의 對중국 수출은 FTA와 무관한 주요 IT 품목의 부진으로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들의 수출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관세 인하가 가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화학·석유·화학 원료제품의 對중국 수출이 하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FTA 수혜품목 중 수출물량이 증가한 품목수도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아직 발효 2년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제한적이며, 향후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FTA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 對中 수출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평가가 발효 초기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며, 통관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중이 높아짐
 - 설문조사 결과, 對中 수출기업 응답자의 약 50% 가량이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65%가 FTA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기업들의 기대가 컸던 48시간 이내 중국 통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 비중이 발효 초기에 비해 크게 상승
 - 그러나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통관지연,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는 바, 앞으로도 정부간 비관세장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내년 한중 FTA 3년차 관세인하에 힘입어 對중국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인하폭 확대에 따라 활용 기업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설문조사 응답자의 92.1%가 내년 對中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36.8%는 수출물량이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Trade Focus 2016년 48호

발행인 | 김인호

편집인 | 김극수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6년 12월 20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